

역사의 광풍과 진실의 동면

—박화성의 「휴화산」론—

김 동 윤*

차 례

1. 머리말
2. 박화성과 제주도
3. 유실된 소설 「활화산」
4. '4·3소설'로서의 「휴화산」
5. 맺음말

1. 머리말

익히 알려졌다고는 하지만 제주 4·3을 소설로 형상화한 것은 한반도(육지부) 출신 작가들이 제주도 출신 작가들보다 먼저였다. 제주도 출신 작가들에 의한 4·3의 소설화는 1970년대 이후에야 시작되었지만,¹⁾ 외지인 작가들의 4·3소설은 4·3 발발 직후부터 간간히 발표되었던 것이다. 외지인 작가가 쓴 4·3 관련 소설에는 허윤석의 「해녀」(1950), 오영수의 「후일담」(1960), 곽학송의 「집행인」(1969)·「사(死)의 삼각관계」(1985) 등이 있고, 황순원도 「비바리」(1956)에서 삽화(挿話) 형식으로 4·3을 다루었다.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제주도 출신 작가들에 의한 4·3소설 창작이 1970년대 이후에야 이루어진 것은 이들의 동단이 뒤늦은 데에 주된 원인이 있다. 충청남도 조치원에 있던 강금중을 제외한다면 4·3 이후 제주도 출신 소설가가 첫 등단한 시점은 오성환이 「신아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는 1969년에 이르러서다.

일제강점기에는 저항의식을 보여주는 작품을 발표하다가 해방 이후 대중소설을 통해 여인의 생대와 운명을 주로 형상화한²⁾ 작가 박화성(1904~1988)도 제주4·3과 관련하여 두 편의 단편소설을 썼다. 「활화산(活火山)」과 「휴화산(休火山)」이 그것이다. 이 두 소설은 그 제목에서 보듯이 적을 이루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활화산」(1940년대 말에서 50년대 중반 사이에 쓴 것으로 추정됨)은 발표되지 않은 채 유실되고 말았다. 「휴화산」은 『한국문학』 1973년 12월호에 「어머니여 말하라」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가, 작품집 『휴화산』(1977)³⁾에 실릴 때에 「휴화산」으로 개제(改題)되었다.

박화성의 「휴화산」에 대한 언급이 이제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논의들은 대체로 단편적·부분적으로만 이루어져 왔으며, 무엇보다도 그것을 4·3소설의 맥락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가 미약했다. 필자도 4·3소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글⁴⁾에서 이 작품을 빠뜨리고 논의했다. 따라서 이 글은 박화성의 「휴화산」을 4·3소설의 측면에서 접근해 보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박화성이 제주도와 어떤 인연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유실된 4·3소설 「활화산」은 어떤 작품이었는지를 추적해 보는 배경적 논의부터 진행하고자 한다. 「휴화산」에 대한 논의는 4·3에 희생된 인물들의 기구한 삶에 초점을 두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고찰하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 2) 박화성의 문학 활동은 대체로 해방을 기점으로 두 시기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하수도 공사」(1932)·「홍수 전후」(1934)·「고향 없는 사람들」(1936) 등 해방 전의 작품들은 단편 속에서도 민중들의 삶의 모습과 리얼리즘적 방법을 통해 보여주며, 해방 후에는 세대간의 갈등이나 남녀간의 애정 관계가 「고개를 넘어면」(1955~56)·「사랑」(1956~57)·「내일의 태양」(1958) 등의 장편 대중소설을 통해 작품의 전면에 부각되고 있다. 김종욱, 「리얼리즘과 한국적 운명론의 긴장 관계」, 『한국소설문학대계 21』(동아출판사, 1995), 569~571쪽.
- 3) 창작과비평사에서 펴낸 이 작품집에는 1930년대에 쓴 3편과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 중반에 쓴 11편의 단편들이 실려 있다.
- 4) 김동윤, 「4·3소설의 전개 양상」, 『탐라문화』19호(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8), 69~89쪽.

2. 박화성과 제주도

박화성은 1904년 전라남도 목포(木浦府 竹洞)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오랫동안 생활했다. 박화성은 중앙문단에서 활동하면서도 선두 살 무렵까지 목포에서 거주했던 것이다.⁵⁾ 50여 년을 목포에 거주하는 동안 박화성은 1946년 조선문학가동맹 목포지부장을 역임하고, 1960년 제2회 목포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제주로부터 141.6km 거리에 있는 목포는 제주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다. 제주와 목포간의 항로는 일찍부터 개설되었고, 근대 이후에는 왕래가 더욱 빈번했다. 특히 1911년 이후에는 제주-목포간 정기항로가 개설되면서, 목포는 제주에서 본토를 왕래하는 가장 주된 항로로 이용되었다. 1937년 제주도청(濟州島廳)에서 펴낸 『제주도세요람(濟州島勢要覽)』의 자료에는 당시에 제주를 오가는 해상 정기항로는 제주-목포간이 월 40회로 가장 많고, 제주-부산이 30회로 나타난다. 또한 1929년 한림항을 통해 제주도에 들어온 교역량을 보면, 목포가 60%, 부산이 35%, 오사카가 5%를 차지한다.⁶⁾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제주 사람들의 목포 출입이 많았을 것이고, 목포사람들 또한 제주를 적잖이 오갔을 것이 분명하다. 특히 박화성의 아버지는 목포항의 선창에서 객주업을 했으니, 제주를 오가는 사람들이 그 객주집을 드나들었을 것이다. 박화성은 이런 환경 속에서 제주도를 그리 낯설지 않은 지역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리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박화성이 자신의 환감을 맞아 발표한 자전소설인 『눈보라의 운하』(1964)⁷⁾를 보면, 그녀가 제주도와 어떤 인연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타

5) 서정자, 「개항 100년을 맞는 목포 소설」, 『목포 100년의 문학』(목포백년회, 1997), 17쪽.

6) 진관훈, 「일제하 제주도 농촌경제의 변동에 관한 연구」(동국대 박사논문, 1999), 48~49쪽.

7) 허구가 가미되지 않은 『눈보라의 운하』는 자서전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 작품은 1963~64년에 잡지 『여원』에 연재되어 1964년에 여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고, 1970년에도 지원사에서 재출간되었다. 이 글에서는 지원사판으로

난다.

나는 약을 받아넘기고 눈을 감았다. 그 때였다. 문득 내 앞에 제주도에 선교사로 간(그때는 제주도에도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목사를 보냈다) 이기풍 목사님이 나타났다.

그는 평소와 같이 머리를 곱게 갈라붙이고 안경을 쓴 채로 멀리서 걸어오는 데 그의 앞에서 또 한 그림자가 솟아올랐다.

이 목사님의 윤곽대로지만 머리가 부수수하고 안경을 쓰지 않은 환영이 나타나면서 이 목사님은 간 데 없고 그분만이 내게로 가까이 왔으나 나는 그의 상체뿐 하체는 볼 수 없었다.

그는 한 손에 약병을 들고 나더러 입을 벌리라고 하였다. 내가 입을 딱 열고 있으니까 머리를 자칫 숙이며 내 입 속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더니 약병을 내게로 대고 꿀꿀 쏟았다.⁸⁾

박화성은 독실한 크리스천이다. 박화성의 어머니는 그녀를 낳은 해부터 교회에 나갔고 아버지도 뒤따라 교회에 다녔다고 한다. “기독교 신자의 가정에 태어나 첫 세례를 받았고, 2세 때부터 찬송가와 성경의 귀절을 외우며 자라났⁹⁾던 것이다. 위의 인용문은 박화성이 열살 때(1913년)의 일이다. 제주도에 선교사로 간 이기풍 목사와 박화성의 가족간에 친분이 있었는데, 이 목사가 꿈에 나타난 것을 계기로 박화성의 병이 나았다는 것이다. 이기풍(1865~1942)은 1907년 평양장로회신학교를 제1회로 졸업한 7명 중 한 사람으로, 한국인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고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로회(獨老會)에 의하여 제주도에 파송되어 성내교회(지금의 성안교회)를 세운 인물이다. 이기풍 목사는 1907년 선교사 파송령을 받은 즉시 제주도를 향해 가족과 함께 범선을 타고 인천항을 출발했으나 심한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다가 목포항에 기항하여 가족을

논의한다.

8) 박화성, 『눈보라의 운하』(지원사, 1970), 49쪽.

9) 박화성, 『나의 인생 노트』, 『순간과 영원 사이』(중앙출판공사, 1982), 248쪽.

친척집에 두고 단신으로 제주로 향했다. 다시 풍랑을 만난 그는 추자도에서 겨울을 나고 1908년 2월에야 제주도 산지항에 도착했고, 목포의 친척집에 있다가 뒤에 따라온 부인은 성내교회에서 1912년부터 17년까지 야간학원을 전담했다고 한다.¹⁰⁾ 이렇게 제주도에 살면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펼쳤던 이기풍 목사와 박화성의 가족이 인연이 있었으므로 어렸을 때부터 박화성은 이 목사 등을 통해 제주도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았으리라는 것이 짐작된다. 박화성과 제주도의 인연은 전해들은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一九三六년 구월에 언니를, 一九三八年 구월에 큰오빠를 잃은 내게는 골육으로 오직 제민오빠(아명은 순경) 한 분만이 남아 있게 되었다.

광주에서 큰오빠의 장례식을 치른 후에 나는 아가를 데리고 멀리 바다를 건너 제주도로 갔다. 거기에는 다행히 영평에서의 제자가 금융조합 이사의 부인으로 있어서 편하고 안정되는 메일을 보냈지만 쪽줄보다도 더 시퍼런 바다 건너의 북쪽하늘은 목포에서보다도 더 멀고 아득하여서 겨우 한 달을 채우고는 다시 돌아오고 말았다.¹¹⁾

위의 인용에서 보듯 박화성은 서른다섯 살이던 1938년에 한 달 동안 제주도에 살았던 경험이 있다. 제주도의 어디에서 살았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휴화산」에서 ‘제주성내(성안)’가 주된 배경의 하나로 나오는 것을 보면 제주읍내에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 「휴화산」에 ‘한림’과 ‘에월’에 관한 언급도 있는 것을 볼 때 제주도 북서부 지역에 거주하였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같은 제주 거주 경험은 박화성의 작품 세계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박화성이 서른아홉 살이던 1942년의 상황이다.

10) 강문호·문태선, 『제주선교70년사』(대한예수교장로회제주노회, 1978), 29~47쪽; 조남수, 「기독교」, 『제주도지』 제3권(제주도, 1993), 698~701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7(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746쪽 참조.

11) 박화성, 『눈보라의 운하』, 246~247쪽.

가리는 음식도 많고 식성도 약한 그가 어쩌다가 식상(食傷)을 했는지 그 후로도 그 빌미로 몇 번이나 괴롭을 당했는데, 음력 팔월 보름날(양력 구월 이십오일) 내가 어머니댁에 가니까 마루에 가방이 있었다. 그때 오빠는 압해도에서 제죽दै이라는 여인과 살고 있었는데, 식모가 제집에 간대서 데리고 나왔다가 집에서 점심 먹고 나갔다는 것이다.¹²⁾

신안군 압해도(押海島; 목포에서 서북쪽으로 1.8km 지점에 있는 섬)에서 박화성의 오빠와 동거하던 여인이 '제죽दै[濟州宅], 즉 제주도 출신의 여인이었다는 것이다. 그녀의 오빠가 정식으로 결혼한 것은 아니지만 제죽दै은 박화성의 율케 격인 셈이다. 따라서 박화성이 그 제죽दै을 통해 제주사람이나 제주도에 관한 정보를 좀더 많이 알게 되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박화성은 제주도와 밀접한 지역인 목포 출신 작가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주도에 한 달 동안 거주하기도 했으며, 그녀의 가족과 친지 또한 제주도와 인연이 있었다. 이런 배경이 그가 제주도와 관련이 깊은 두 편의 작품을 쓰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3. 유실된 소설 「활화산」

박화성은 결혼을 두 번 한다. 스물다섯 살 때 얻은 첫 남편인 김국진은 철저한 사회주의 사상을 지닌 인물이었는 데 그의 간도 이주 등을 계기로 1937년에 이혼했다. 그와 이혼하던 서른네 살에 맞은 두 번째 남편은 천독근이었다. 두 번째 남편과는 그다지 나쁜 사이는 아니었지만, 형제가 많은 그와의 결혼으로 인해 고생도 많이 하고 작품 활동에도 적잖은 지장을 받는다. 남편 천독근은 젊은 시절에 전남도의원, 상공회의원, 학교 이사, 섬유조합 이사, 섬유회사 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했으나, 한국전쟁으로 재산을 잃고 자유당의 일관성 없

12) 위의 책, 273쪽.

는 정책으로 사업 재기에 실패하자 성격이 광폭해진다. 그때 천독근은 여편네가 건방지게 소설을 쓴다며 박화성이 모아둔 원고들(10편의 소설)을 불에 태워버렸는데, 여기에는 200자 원고지 70매 분량의 미발표 소설 「활화산」도 들어 있었다. 소실된 원고 중 미발표작은 「활화산」 하나이고, 나머지는 이미 지면에 발표한 것들을 모아둔 것들이었다. 『눈보라의 운하』에는 그 일화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다.

상가(喪家)와 같이 경황없는 집안인데 돌연 아빠(남편: 인용자 주)가 큰 소리로 나를 꾸짖으며 옷목에서 쓰고 있던 <사랑>의 원고지를 뺏아서 동댕이쳤다.

“여편네가 건방지게 소설이 다 뭐야?”

그는 눈을 부릅뜨며 호통을 쳤다.

(……)

“좋아요, 오늘이라도 그만두지. 그래서 내 소설을 모조리 태웠군요?”

나는 가슴에 뺏혔던 한 마디를 சொ았다.

작년에 내가 서울에서 집에 돌아가니까 책장(書架)을 뜯어서 옮겼다는데 몇 해를 두고 천신만고로 구해 둔 소설문치가 없어졌다.

눈이 벌컥 뒤집힌 내가 아무리 물어도 아빠는 모른다고 할 뿐이요 제집애들도 처음엔 딱 잡아떼다가 하도 끈질기게 내가 유도심문을 하니까

“아버지가 주시면서 불 때라고 하시길래 때면서 보니까 모두 책장이두만요.” 했다. 소녀들을 데리고 책을 옮기던 아빠가 누런 신문지(퇴색해서)로 썩은 문치를 주면서

“이런 추잡한 것들을 쟁여놓고 원 사람이 왜 그 모양이야?”

하면서 빨리 아궁이에 태워버리라기에 밥 지으면서 나무 대신 뺏다는 것이다.

그 내용인즉 연전에 제주 폭동 사건을 소재로 한 「활화산(活火山)」이라는 七〇장의 단편을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곳에 발표하려고 아꼈던 원고와, 각 잡지며 신문에서 도리고 오려서 모아둔 책장과 신문종이었다.

「진달래처럼」, 「봄 안개」, 「검은 사포」, 「파라솔」, 「광풍」, 「파랑새」, 「거리의 교훈」, 「형과 아우」, 「외투」 등 아홉 편과 「활화산」까지 열 편을 새로 만들어버린 소위가 어찌나 패썹하던지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 없었다.¹³⁾

13) 위의 책, 368~369쪽.

위의 상황은 박화성이 「사랑」을 연재하던 1957년 초의 일이다(「사랑」은 「한국일보」에 1956년 11월 25일부터 1957년 9월 15일까지 289회 연재되었다. 인용문에 따르면 원고들을 불태운 시점은 1956년이다. 따라서 「활화산」을 쓴 시기를 추정하면 4·3이 발발하던 1948년에서 원고가 불태워진 1956년 사이가 된다. 최일수는 박화성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글¹⁴⁾에서 「활화산」의 창작 시점을 1949년으로 밝히고 있다. 최일수가 박화성과 동향의 평론가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작가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 글은 작품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이 작품명과 연도만을 명기하고 있어서 그 신빙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1949년이 맞는 것이라면, 허윤석의 「해녀」보다 1년이 앞선 시점이다. 하지만 「활화산」은 1956년까지 발표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문학작품의 경우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논의되는 통례에 따를 때, 최초의 4·3소설일 수는 없다.

또한 「활화산」은 「제주 폭동 사건을 소재로」 했다는 언급에서 보듯이 4·3을 다룬 작품임은 분명하나,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다. 변신원은 이 작품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고 있다.

이 「활화산」은 당시의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룬 소설로 이 작품이 없는 상태에서 박화성이 이 사건을 어떤 각도에서 해석하고 있는가를 명백히 알 수는 없으나 그의 소설에서 근대화의 한 방편으로 미국에 대한 선망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이 해방직후의 미군정체제의 모순에 저항한 민중의 항쟁이라는 역사적 해석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임을 보여준다.¹⁵⁾

「활화산」이 4·3을 「본격적으로 다룬 소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 역사적 해석은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다

14) 최일수, 「의지의 미학—박화성의 작품 세계」, 「한국현대문학전집4」(삼성출판사, 1985), 402쪽.

15) 변신원, 「박화성 소설 연구—사회의식과 여성의식을 중심으로」(연세대 박사논문, 1995), 138쪽.

소 피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필자가 보건대, 「활화산」은 「휴화산」보다는 4·3을 더 직접적으로 다루었고 상황 묘사도 더 생생하게 나타난 작품이었지 않나 짐작된다. 제주도에 대한 서술도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드러났을 것이다. 물론 변신원의 지적처럼 피상적 역사 해석이 이루어졌음도 분명해 보이는데, 이는 현기영의 「순이 삼촌」(1978) 이전에 발표된 모든 4·3소설에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다.¹⁶⁾

이렇게 볼 때, 4·3의 와중에서 쓴 것으로 추정되는 「활화산」이 발표되지 못하고 유실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그 작품이 당시 상황을 생생하고 실감나게 묘사했을 것으로 믿어지는 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다.

4. '4·3소설'로서의 「휴화산」

이 소설의 화자(話者)인 '나'(<신현구>)는 스물네 살의 청년이다. 주로 <신현구>가 독자들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소설이 전개되는 가운데 간간히 작가 관찰자 시점의 서술도 나온다.

제주도 제주읍에서 살던 <고정애>와 <신재식>은 외지에 나가 공부하는 학생들이었다.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 <고정애>는 목포유학생, <신재식>은 서울유학생이었는데, 그들은 제주와 목포를 오가는 여객선을 함께 타면서 가까워지게 된다. 그러나 <고정애>의 집안에서는 <신재식>과 헤어질 것을 종용한다. 육지에서 들어온 뜨내기 교사의 집안이 대대로 부를 이어오며 관계·군문 등에서 세력을 휘어잡고 있는 명문가인 자신들과 격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정애>는 굴복하지 않고 <신재식>과의 뜨거운 사랑을 이어간다. 그러던 중 1948년 4·3이 발발하고 때마침 봄방학을 맞아 제주에 머물고 있던 <신재식>

16) 필자는 「4·3소설의 전개 양상」에서 4·3소설의 사적(史的) 흐름에 대해 ① 피상적 접근 단계(1978년 「순이 삼촌」 발표 이전), ② 사태 비극성 드러내기 단계(「순이 삼촌」~1987년 6월항쟁), ③ 다양화·종합화 단계(6월항쟁 이전)로 규정할 바 있다.

은 변을 당한다. 그러자 그 직후인 4월 24일에 <고정애>는 자칭하여 <신재식>과 혼령결혼식을 올린다. 이를 계기로 <고정애>는 친정과 완전히 인연을 끊고 시집에서 생활하던 중 배가 불러온다. 만삭의 <고정애>는 여순 사건에 관련된 인물을 숨겨두었다는 혐의를 받고 12월말 여수형무소에 수감된다. 거기서 그녀는 임신 사실을 근거로 <신재식>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당하기도 한다. 결국 이듬해 1월 24일 그녀는 형무소에서 사내아이를 낳는다. 그 아이가 <신현구>로, 그는 출생 내력과 관련하여 '신자(神子)' 즉 '귀신의 아들'로 취급된다. <신현구>는 외가의 갖은 냉대와 박해 속에서도 제주도 한림중학교를 나와 서울의 일류 K고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다. 1967년 S대학 정치과에 입학하여 도중에 군대에 다녀온 그는 1973년 현재 3학년에 재학중이다. 그는 자신이 귀신의 아들로 취급되는 현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어머니 <고정애>에게 외국으로 이민 가겠다고 한다. 그러자 <고정애>는 이제 때가 되었다며 아버지 <신재식>과 관련된 사연들을 말하려고 한다.—이것이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한 소설 「휴화산」의 대체적인 내용이다.

「휴화산」은 4·3의 후일담으로서, 당시 사태의 전말 등이 직접적으로 그려지지는 않는다. 이 소설이 4·3자체에 대한 탐구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작품은 아니라는 것이다. 작가는 명문가인 고씨 집안의 사람들과 <신현구>와의 마찰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 <신현구>는 4·3의 피해자로 사회에서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나 오늘날까지 가문의 영예를 누리는 고씨 집안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작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⁷⁾

하지만 이 소설에서 우리는 제한적으로나마 4·3의 단면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4·3의 성격을 작가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다음에서 어느 정도 엿보인다.

17) 변신원, 앞의 논문, 139쪽.

고정애가 이곳으로 끌려온 것은 크리스마스의 열기가 돌기 시작하는 12월 22일, 이 해 들어 제일 혹한이던 동짓날이었다. 동지팔죽을 한 술 가득히 쑤 놓고 불들려온 것이다.

여수순천 사건이 발생한 본거지인데다가 그로부터 두 달밖에 경과되지 않은 시가의 분위기는 역시 제주 사건 이후의 제주성내의 그것과 흡사하였다. 다만 경찰보다도 군인들의 활약이 주도적인 것 같은 것만이 달라 보였다.(『휴화산』, 122쪽¹⁸⁾)

인용문을 보면 작가는 4·3과 여순사건이 동일한 정치사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며 제주의 사건에서는 경찰이 민간탄압의 주도 세력이었던 데 비해 여순사건은 군인이 주도하여 반란군을 토벌했다는 역사적 상황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⁹⁾ 그런 상황을 작품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리지는 않았지만, 그 역사적 맥락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역시 피상적 접근에서 그다지 나아가지 못한 한계는 있다.

4·3과 관련해서 이 작품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그 상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구한 운명과 시련을 그렸다는 데 있다. 특히 <고정애>와 <신재식>의 사랑에 얽혀진 4·3, 그로 인한 <고정애>의 수난사, 그리고 그 이세인 <신현구>의 정신적 고통 등이 이 작품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첫째, <고정애>의 사랑과 수난사는 이 소설에서 4·3의 상흔을 가장 폭넓게 보여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 명문가의 딸 <고정애>는 일제말기 목포에 있는 일본인여학교에 다니다가 1947년에 여중을 졸업했으나, 완고한 부모의 반대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직장생활을 한다. 목포유학생 시절부터 <신재식>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던 그녀는 집안에서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을 이어나간다. 하지만

18) 1977년 창작과비평사에서 펴낸 단편집에 실린 작품으로 텍스트를 삼았다. 인용문의 쪽수는 이 창작집의 것을 말하며, 이하 작품을 인용할 때에는 쪽수만 표시함.

19) 변신원, 앞의 논문, 139쪽.

역사의 소용돌이는 그들의 사랑에 커다란 시련을 부여한다. 스물한 살이 되던 해 <고정애>는 4·3의 와중에서 <신재식>과 '혼령결혼식'을 올리기에 이른다. 역사의 광풍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정상적인 결혼을 용납하지 않았던 것이다.

1948년 4월 24일 밤 8시. 제주 성내리에서도 가장 끝동네 귀퉁이에 초연하게 서 있는 신재식의 집에는 고요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말없이 움직이는 여인들의 치맛자락만이 가끔씩 무겁게 펄럭이었다. 자정(子正)에 있을 혼례식에 소용되는 약간의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혼례식이라면 그래도 경사(慶事)일 테고 경사일진대 웃음도 있을 법하건만 그들의 입은 굳게 닫겨져 손과 몸만이 기계처럼 놀려지고 웃음은커녕 어찌다가 동작에 필요한 문답도 소리없는 극히 짧은 대화로 끝나곤 했다.(99쪽)

자정이란면 제사를 지낼 시각이지 결혼식을 올릴 때는 아니다. 더욱이 생인(生人)끼리 혼사를 치르는 상황도 아니다. 이러한 망측스런 상황 설정은 4·3의 비극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 후 <고정애>가 망자(亡者)의 씨를 잉태하면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겨울이 가까워지자 <고정애>의 임신 사실이 주위에 알려졌고 그녀는 또 다른 수난의 길로 들어선다. 만삭의 <고정애>는 한 겨울에 여수형무소에 수감된다. <고정애>가 연행된 시점은 4·3 당시 토벌대의 무제한적인 초토화작전 전개로 인명피해가 극심한 시기였다.²⁰⁾ 당시에 무고하게 희생된 양민들은 한들이 아니었다. 4·3이나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수감생활을 했던 양민들도 많았다. 그런데 <고정애>의 경우는 망자의 씨를 잉태한 만삭의 몸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20) 제민일보 4·3취재반의 『4·3은 말한다』(전예원, 1994~99)에는 1948년 10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사태의 유희기', 1949년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를 '육·해·공 합동 토벌기'로 규정하였다.

다음날은 아침부터 고정애에게 진통 비슷한 아픔이 와서 종일 고통을 겪다가 다음날 아침에야 곁에 있는 여인의 보고로 정애는 병상에 붙여가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5일 이내에 해산하리라는 것이다. 정애는 미리 해산에 필요한 것들을 나이 지긋하고 비교적 친절한 여간수에게 부탁하여 약간 준비한 것이 있었지만 중시 22세의 어린 산모에다가 아무런 경험이 없는 초산에 장소마저 지극히 자유롭지 못한 감방이고 보니 불안과 공포가 겹쳐 날마다가 두렵고 괴롭고 지루하기만 하였다.(114쪽)

만삭의 몸으로 형무소에 끌려간 <고정애>가 감방에서 겪는 시련이 그려지고 있다. ‘불안과 공포가 겹쳐’ 두렵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었던 것이다. <고정애>는 스물두 살이던 1949년 1월 24일 형무소 안에서 출산한다. 만일 <신재식>이 <고정애>와 관계를 가진 직후 변을 당했고 그 때 임신한 것으로 가정한다면, 만 10개월을 거의 채워서 출산한 것이니 보통의 출산보다 한 달 가까이 늦은 셈이다.

(……) 나의 젊은 어머니는 생후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강보 영아를 안고 1월 30일 이른 아침 여덟시에 형무소의 문을 나왔습니다. 겨울의 여덟시면 바람도 맵고 한기도 제일 날카로운 시각인데 이 가련한 모자를 마중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제대로 조리도 섭양도 못해본 산모는 일주일에도 몸을 잘 가누지 못할 만큼 쇠약해 있었는데 말입니다.(115쪽)

한겨울에 갓난애를 안고 산후조리도 못한 상태에서 형무소 문을 나서서 비극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다. 출산 일주일 후에 그녀는 석방되지만 거기서 시련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친정 식구들의 냉대를 받아가며 아들 <신현구>를 키워나간다. 그리고 아들의 공부를 위해 제주를 떠나 서울로 이주한다. 아들을 서울의 고등학교로 진학시키면서 그 뒷바라지를 위해 그녀는 학교 인근 동네에 구멍가게를 내고 밤낮으로 노동을 한다. 이렇듯 4·3의 여파로 혼백결혼을 하여 청상과부로서

반평생을 살았던 <고정애>의 기구한 삶은 그 자체가 4·3으로 인한 민중수난사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그 아들 <신현구>의 삶은 4·3이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기능을 한다. 과거 세대의 한이 현재 세대로 이어지면서 계속된다는 '연속성'의 의미를 부여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현길언의 「우리들의 조부님」(1982)에 나오는 <희빈>과 비슷하다.

나 신현구는 음산한 감방 한구석에서 그렇게 인생으로서의 첫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 갈래의 의문점을 안고 말씀이지요. 아버지가 죽었다 살았다, 있다 없다, 혼령이다 아니다, 잡다한 소음(騷音)도 소음이라니와 하필이면 감옥 출생이라니 참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비상(非常)한 존재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 신현구를 결혼의 대상은커녕 애인이라고도 택할 용기를 내겠습니까? 재수없다는 타박 맞기 안성맞춤이지요.(114~115쪽)

4·3 당시 변을 당한 <신재식>과 혼령결혼식을 올린 <고정애>의 몸에서 태어난 <신현구>는 출생부터 대단히 비극적이었다. '음산한 감방 한구석에서' '여러 가지 의문을 안고' 태어난 <신재식>은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비상한 존재'였던 것이다. "옥중 탄생이라는 기괴한 운명을 짊어진 <신현구>는 감옥에서 풀려나온 어머니와 함께 오랜 세월을 두고 해야될 수 없는 고난의 가시밭을 걸어야 했다."²¹⁾ 귀신의 아들이라 불리면서 아비 없이 자란 그는 성장 과정에서 그것으로 인해 감내하기 어려운 갖은 수난을 겪어야 했다.

나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국민학교 4학년 때에 외가댁의 아이들과 동급이어서 자주 싸웠는데 한 번은 그 집에까지 불들려가서 외숙모란 여인에게 따귀를 맞으며 주문처럼 뇌까리던 귀신의 자식이란 언어하며, 외할머니란 노인의 감옥 소 귀신이 씌어서 못돼먹었다는 저주의 욕설이며를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에는 절대로 잊어먹지 않을 것이니까요.(118쪽)

21) 김병길, 「역사의 그늘」, 『창작과비평』 1977년 겨울호, 171쪽.

걸음으로 드러나는 상황들로만 볼 때 이 작품에서 작가는 <신현구>이 겪는 시련을 외가와외의 충돌에 따른 것이거나, 여자를 사귀기 어렵다는 것 등으로만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단순히 개인적·가족적 차원의 어려움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 이면에는 4·3의 상흔이 배어 있는 것이기에, 그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물론 왜 그가 귀신이 아들이 되어야 했는가 하는 점에서부터 찾아야 하리라고 본다.

“어머니 전 이민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

“뒤편이 누구와 의논한 거냐?”

“저 혼자의 결심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버티어 보았대야 귀신의 자식이라는 명칭이 끝내 따라다닐 테니까요. 차라리 여기를 떠나서 자유롭게 활발하게 살고 싶어요.”

“어미와 나라를 버리고 너 혼자의 생존을 위하여 이민 가겠단 말이지?”

“그럼 어찌란 말입니까? 언제 어머니께서 아버지에 대한 무슨 말씀을 내게 들려주셨단 말입니까? 돌아가셨는지 아닌지 항간의 소문만으로 결정지를 수도 없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나를 어떻게 낳으셨는지 즉 몇 달 만에 낳게 되셨는지 상상으로도 주위의 알림만으로도 극히 모호하고 석연찮기만 하거든요. 그런데도 귀신의 아들이라는 딱지는 끝내 떨어지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썽 많은 이 자식만 훌쩍 떠나버리면 영구한 망각이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124~125쪽)

자기의 신분에 대한 모멸감을 참다못해 결국 이민까지 결심했다는 점은 <신현구>의 고통과 시련이 얼마나 컸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조국에서 아무리 버티어 보아도 귀신의 자식이라는 굴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한계상황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오욕의 과거를 망각으로나마 청산하고자 하는 <신현구>의 항변은 4·3의 상흔을 안은 채 살아가는 민중들의 항변을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신재식>의 행방에 관해서 추적하는 것은 이 작품을 해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신재식>은 제주도 토박이가 아니라, 육지(목

포?) 출신 부친이 제주에 와서 교직에 몸담게 되자 제주와 연고를 맺은 인물이다. 그는 정치학을 전공하는 서울 유학생이었는데, 대학 2학년 봄방학 때 내려왔다가 4·3을 맞아 변을 당한다. 그런데 그 변고에는 다소 모호한 구석이 있다. 여기서 <신재식>의 행방에 의문을 제기해 본다면 비극적 상황을 더 깊이 인식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신재식>은 당시에 정말로 사망한 것인가?

그러던 차에 1948년 4월 3일 폭동 사건이 일어나 고씨 가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다소 괴로움을 당하였고 그때는 9월이 신학년이어서 학기시험을 끝내고 봄방학에 고향에 돌아와 있던 신재식 씨는 행방불명이 되었다가 결국 죽음이 확인되었던 것입니다.(107쪽)

이 인용문은 화자인 <신현구>의 목소리다. <신현구>는 아버지 <신재식>이 4·3의 와중에서 ‘행방불명이 되었다가 결국 죽음이 확인되었’다고 알고 있다. <신현구>는 물론이요 모든 이들에게 공히 <신재식>이 4·3 때 죽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뒤늦게 <고정애>가 임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다.

11월이 되자 고씨의 배는 완연하게 등실 두드러졌습니다. 초산이어서 그때까지는 몸매의 이변(異變)이 없었으나 날로 커가는 태아(胎兒)의 성장을 막을 길이 없으니 임신이라는 것을 숨길 도리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주위의 속덕임이 여러 가지로 변질도 되고 진화(進化)도 되었습니다.

“분명 혼백결혼 아니었소?”

“누가 아니래요? 우리도 가서 도와주며 참례하지 않았나베요.”

“거 참 이상하지? 혹시 죽기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나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만…… 이봐요 혹시 살아 있는 거나 아닐까?”

“에끼 죽은 건 확실하지 않아?”

“누가 시체를 확인했어? 재식이 죽어 넘어졌는데 어떤 작자가 끌고 가는 것을 목도하고 도망쳐 온 방앗간 아들의 말을 그대로 믿은 거래요.”

“그러니 틀림없이 죽은 거 아니요? 예수라고 다시 살아나겠소?”

“그렇다면 그 애는 뉘 애란 말요? 설마 혼령이 씌어서 아이가 된 건 아니겠지. 혼령이 어떻게 애를 만들어?”

“아유 머릿살 아파. 어미 자신이야 알고 있겠지. 우린 그만두자구. 결말도 없는 말 밤낮 해 뭘 하오?”

그런 대화는 그 사실을 아는 집집마다에서 계속되어 나중에는 재식이 가 꼭 살아 있을 것이라느니, 정애에게 딸 애인이 있어 임신되었다느니, 두 가지의 결말로 일대 도약(一大跳躍)을 했더랍니다.(110~111쪽)

위에 인용한 대목에서 보면, <신재식>의 시체가 정확히 확인된 것이 아니다. 다만 <신재식>이 죽어 넘어졌는데 어떤 작자가 끌고 가는 것을 목격한 동네 사람(방앗간 집 아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정애>나 <신재식>의 부모가 <신재식>을 죽었다고 처리하여 혼령결혼식을 올린 것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던 당시 사태의 외증에서 그의 목숨을 부지토록 하기 위한 속임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은 작품의 말미에서 상당한 근거를 획득한다.

이번에는 내가 어머니께 아프게 반문했습니다.

“귀신의 자식으로 살아가란 말인가요?”

“내가 왜 귀신의 자식이란 말이나? 엄연히 훌륭한 아버지가 계신데……”

“어머니! 툭 털어놓고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사실은요. 네? 어머니!”

“그래.”

어머니는 한마디를 침통하게 토하셨습니다. 정말 토하시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인제야 내가 말해 줄 시기가 닥쳐온 것 같다.”

“어머니! 오늘에야말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제 인생의 행로를 결정하겠습니다.”

중요한 대화를 앞에 둔 이 집의 뜰에는 오월의 미풍이 한가롭게 넘나들고 있었습니다.(126쪽)

<신현구>가 이민을 가겠다고 하자 <고정애>가 만류하면서 <신재식>에 관한 숨겨진 사연을 말하려고 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인제야 내가 말해 줄 시기가 다했다'는 말의 의미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소설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자면, 이는 그 동안 사정상 말하지 못했지만, 비밀에 부쳐왔던 뭔가 새로운 사실이 있음을 털어놓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월의 미풍이 한가롭게 넘나들고 있었'다는 서술은 갈등의 해결 국면을 말하는 것이다. 갈등의 해결 양상은 아무래도 무엇인가 희망적인 메시지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신재식>은 당시에 곧바로 사망하지는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22)

그렇다면 <신재식>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던 것일까? 행방불명된 <신재식>은 은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은거하다가 좀더 시일이 지나서 죽었거나, 아니면 일본 등지로 도피한 것은 아닐까? 혹은 <신재식>이 정치학도였던 점으로 미루어 짐작건대, 그가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가 붕기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의 생존 사실을 숨기려고 하였던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신재식>과 <고정애>의 결혼식도 <신재식>의 생존시에 거행되었기에 사실상 혼령 결혼이 아니었다는 것이 된다. 이렇게 보았을 때, 살아 있는 <신재식>을 죽은 것으로 처리해야 했고, 그 사실을 25년 동안이나 숨겨야 했던 그 절박하고 고통스런 상황은 4·3의 비극성을 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3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지만, 그 희생에 대해서 발설하는 것조차

22) 변신원은 이 상황을 필자와 달리 해석하고 있다. 그는 <고정애>가 <신현구>에게 하려는 얘기를 4·3의 진상에 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말하자면 <신재식>의 행방에 죽음 이외의 변수가 있었음을 털어놓으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이제부터 고정애가 털어놓을 이야기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 넣은 4·3사건의 진상이다. 작품 속에서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신 이후 경직된 1970년대의 분위기에서 군권의 부당한 횡포에 저항하였던 인물의 이세가 진정한 애국자의 후예임을 보여준 이 작품의 시대적 의의는 크다."(변신원, 앞의 논문, 140쪽)

오랫동안 사회적 금기가 되었던 것이다.

5. 맺음말

이 글은 박화성의 단편 「휴화산」을 4·3소설의 측면에서 검토하기 위한 목적에서 씌어진 것으로, 그 배경적 논의에서부터 출발하여 4·3에 희생된 작중인물들의 삶을 주로 논하였다. 지금까지 고찰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박화성은 제주도와 밀접한 지역인 목포 출신 작가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주도에 한 달 동안 거주하기도 했으며, 그녀의 가족과 친지 또한 제주도와 인연이 있었다. 이런 배경이 그가 제주도와 관련이 깊은 「활화산」과 「휴화산」을 쓰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둘째, 4·3의 와중에서 쓴 것으로 추정되는 「활화산」은 박화성의 남편에 의해 불태워져 발표되지 못하고 유실되었는데, 이 작품은 4·3의 상황을 비교적 생생하고 실감나게 묘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휴화산」에서 4·3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할 점은 사태에 희생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구한 운명을 그렸다는 데 있다. 특히 4·3의 여파로 애인이 변을 당하자 혼백결혼을 하여 비밀을 간직한 채 청상과부로서 고통스런 반평생을 살았던 <고정애>의 삶은 4·3으로 인한 민중수난의 양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넷째, 형무소에서 태어나 귀신의 아들로 불리며 주위의 정신적 확대 속에 성장하고 그로 인한 모멸감 때문에 이민까지 결심하는 <신현구>의 삶은 4·3으로 인한 과거 세대의 고통이 현재 세대로 이어지면서 계속되고 있다는 '연속성'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다섯째, 작품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4·3 직후 죽은 것으로 알려진 <신재식>은 당시에 곧바로 죽지 않은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는데, 이런 해석은 작품의 의미를 더욱 심화시킨다. 즉, 살아 있는 사람을 죽은 것으로 처리해야 되었고, 그 사실을 25년 동안 숨겨야 했던 고통스런

상황은 4·3의 비극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휴화산」은 4·3 자체에 대한 접근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작품은 아니다. 그러나 4·3을 겪은 사람들 혹은 그 후예들의 기구한 운명을 또 다른 측면에서 보여준 작품이라는 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특히 죽음과 출생이라는 인간의 원초적인 문제를 격변기의 역사와 엮어 놓으면서 진실이 숨겨질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상황을 그렸다는 점은 이 소설에서 대단히 중요한 맥락이라 할 것이다.